

## 고혈압병 - 사상 의학 치료 경험

孫永錫\*

### 고혈압병의 사상의학적 치료와 임상관찰

고혈압은 세계적으로 제일 흔히보는 심혈관 질병의 하나로서, 인류의 생명에 대하여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다. 오늘날 의학과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놀랍고도 마땅히 중시를 돌려야 할 연구보고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바; 1979년 부터 1980년 중국에서 근 400만 명에 대한 고혈압 검사중에서, 그 발병률의 2-10% 발견되었는데, 평균수치가 4.67%로서, 여기에다가 임계성 고혈압까지 합하면 그 발병률의 7.73%에 달하게 된다.

미국의 1985년 통계에 의하면 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99만인데, 전년 사망총수의 50.59%를 점하고, 그중에서 65%가 고혈압병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세아주에서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수가 전체병으로 사망한 사람수의 11.3%를 차지하는바 암병 다음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고혈압병은 오랜 질병의 하나로서 그전의 진정으로 존재함과 아울러 한개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19세기 80년대 "혈압기"가 발명되어서 부터의 일로서 근근히 백여년 밖에 안된다. 이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무릇 서의던 중의던 사상의이던기간에 "혈압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모두 고혈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었는바, 본병을 모종증상표현과 근사

한 질병으로 알았으며, 각기 자기의 의학체계의 독특한 술어로서 그를 묘사하였을 따름이다. 사상의학과 중의학에선 고혈압병을 "현훈, 두통, 간양, 간풍, 적색병"등 병명으로 불러 왔다. 사상의 중의와 서의의연구발견을 비교하여 보면 서방의학의 고혈압병과 사상의학과 중의학적 "현훈과 두통"등은 절대적인 상등관계는 없지만, 많은 정도에서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목전 연변에선 사상의학을 주체로 중의와 서의가 결합, 즉 접목의 방법으로 진단을 서로 참고하고, 약물을 연합하여 쓰는 것이 임상에서의 보편화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미 세인의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래에 본신의 연구와 임상경험을 소개하니 여러 동료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 1. 태음인협방, 비방, 단방:

1) 청폐사간탕 혹은 열다한소탕에 천마 마두령 구인 각7.5-15g가하여, 달여 먹는데, 처방에서 반드시 대황을 써야만이 능히 이열, 어혈, 하초습열을 치료할 수 있다.

2) 개오동나무잎 혹은 열매(溴五桐葉或子) 15-25g, 달여서 먹던지 혹은 더운물에다 불귀두고 차처럼 마시는데; 신선한 잎의 그 효과가 제일 좋다. 혹은 매일 10-16g씩 가루내어, 3-4번에 나누어 먹어도

\* 중국 연변 룡정시 중의병원

된다. 개오동나무잎 혹은 열매는 혈관의 서숙과 중추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것을 통하여 강압한다.

3) 로프마엽(羅布麻葉) 15-30g, 달여서 먹든지 혹은 더운물에 불귀두고 차처럼 마셔도 된다. 로프마엽에 흑백 두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효능이 같다. 로프마엽은 이뇨작용을 겸유하고 있는바 원발성고혈압 및 신경성고혈압에 모두 명확한 강압작용이 있다.

4) 장춘로(長春露)는 소나무잎 자연발효수로서, 한번에 20-30ml, 1일 2차 먹는다. 장춘로는 진경, 최면, 강압작용이 있다.

5) 감나무잎(乾柿葉) 30-60g, 달여서 1일 3차 먹는데; 또는 그 잎을 가루내어 한번에 3-6g씩, 하루 3번씩 먹을 수 있다. 감나무잎은 혈관을 연화시키고 이뇨, 강압작용이 있다.

6) 우담라복자환(牛膽菴服子丸): 라복자(무우씨) 90g 소열1개를 가루내어 오자만큼 환을 지어서, 1차에 10-20g환, 1일3차 먹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라복자의 강압작용과 교감신경계통과는 관계가 없으며, 가능하게 다른 기제가 있는바, 치료 후 담고춘이 명확히 강저되고 심전도가 명확히 개선되는바 고혈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혈압성 심장병과 관심병을 예방 감소시킨다.

## 2. 소음인협방, 비방, 단방:

1) 사물탕에다가 많은 량의 황기즉50g과 생두충 청목향 각 7.5-15g 껍질7.5g 달여서 먹는다.

2) 곽향정기산에 목향 오약 천남성 각 7.5g 생두충7.5-15g 가하여 달여 먹는다.

3) 락화생너울 혹은 잎(花生藤或葉): 100g달여서 먹거나 더운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신다; 혹은 생락화생 껍질(花生賣) 120g, 을 두번 달여서, 세번에 나누어 먹는다. 락화생너울, 잎, 껍질엔 모두 혈압을 낮추고 담고춘을 내리는 작용이 있다.

4) 생미나리즙(生芹菜汁): 한번에 1잔씩 1일 2차 먹는다. 생미나리는 아드레날린을 대항하고, 뇌하수

체후엽에 대항하지 않으며, 조건 반사성 흥분과 충돌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시키며, 강압작용이 강하고 담고춘이 명확히 하강된다.

5) 생젠치(生茺子, 生茺菑子) 20g, 가루내어 두번 달인후 꿀을 가하여, 하루 두번에 나누어 공복에 먹는다. 생젠치는 강압작용이 현저하다.

## 3. 소양인협방, 비방, 단방:

1) 양격산화탕 혹은 지황백호탕에 목적15-25g 하초15-25g, 가하여 달여 먹는다.

2) 솔장다리(猪毛刺) 25-50g, 달여서 먹든지 더운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신다.

3) 오이너울(黃瓜藤) 75-150, 달여서 먹든지, 더운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신다.

4) 바나나껍질(香蕉皮) 30-60g, 달여서 먹든지, 더운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신다.

아래에 근5년내 전형적인 병례중, 각 상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소개하니 여러 동료들께서 참고하기 바란다.

1) 태음인병안: 김 ××, 남, 42세, 화룡시투도술 공장, 간부.

병사: 본환자는 3년전 현훈으로 인하여 병을 보였더니 혈압이 210/120ml 였는데, 이미 복방강압소, 맥통, 우황강압환등을 먹었지만 효과가 현저하지 못하였고 혈압이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초진: 1990년 3월 29일, 두통이 나고, 어지럽고, 목이 뻣뻣하고, 잠이 잘오지 않으며, 시력이 모호하고, 심계가 있고, 자주 울열이 오르면서 낮이 붉다. 혈압 214/116ml, 맥현세하고, 설질이 어둡고 어반이 있으며 설태가 푸르고도 두텁다, 청진 심장의 수축기 잡음이 많으며, 흉부엑스레이 투시에 주동맥의 돌출, 심전도에 관상동맥 공혈불족, 심전도 불정상, 뇌혈류도 검사에 뇌동맥 경화증, 화학 결과 담고춘 192mg/%, 뇨상규 정상, 혈형 O형, 점액질, 안정형.

병상, 변병, 변증: 태음인, 열다형, 현훈증.

치료원칙: 정풍평간, 청노지현.

방약: 청폐사간탕가미-갈근20g 황금10g 교구등  
고본 백지 각15g 대황 라복자 길경 각7.5g 승마5g,  
천마 구인 마도령 각7.5g, 20첩.

제2진: 6월 9일, 혈압이 내려서 150/92ml; 원처  
방대로 20첩.

제3진: 7월 10일, 혈압이 내려 130/70ml, 현훈,  
실명, 심계통등 여러가지 자각증상이 다 소실되었  
다. 그런데 본인이 구슬하기를 요즈음 공작을 돌격  
적으로 하는데, 밤늦게야 비로소 휴식한다고 한다.

처방: 개오동나무 잎25g, 뜨거운 물에 우려두고  
차처럼 계속 한달반동안 견지하여 마시되; 만약 잎  
이 없게 되면 개오동나무씨를 한번에 15g씩 대응해  
서 차처럼 마시게했다.

제4진: 1992년 3월 1일, 환자를 방문한 결과 혈  
압이 146/94ml로서 그후 한번도 반복이 없었다.

2). 소음인병안: 목××, 녀, 60세, 화룡시팔가자  
림업국, 퇴직노동자.

병사: 본환자는 고혈압병으로 이미 9년간 앓았는  
데, 이미 복방로프마정, 리세르핀, 복방강압소, 중  
약등을 많이 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초진: 1990년 10월 29일, 현훈, 실면, 입과 입술  
이 뻣뻣하고, 위가 불화하면서 조잡(嘈雜)이 있  
고, 맥현세, 설태가 두텁고 변록은 얇으며, 혈압이  
210/110ml, 흉부엑스레이투시에 주동맥궁의 건강  
되고 완곡되었으며, 좌심실의 경하게 확대되고, 심  
전도도 불정상으로서 심근결혈이고, 뇌혈류도에는 뇌  
동맥경화증, 혈액형A형, 우울질, 약형.

변상, 변병, 변증: 소음인, 열다형, 현훈, 흉비,  
내풍.

치료원칙: 이기거풍화담, 청뇌지현.

방약: 광향정기산가미- 황기50g 굴껍질 청목향  
천남성 오약 생두충 각7.5g 백출 창출 소엽 건강 감  
초 각5g 광향7.5g, 20첩.

제2진: 11월 25일, 혈압이 내려서 176/90ml; 원  
처방대로 20첩.

제3진: 12월 20일, 혈압이 내려서 165/90ml; 처  
방-생략화생껍질120g,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처럼  
1개월반동안 견지하여 마시게 했다.

제4진: 1992년 3월 1일, 환자를 방문한 결과 혈  
압이 160/90ml로서, 그후 한번도 반복이 없었다.

3). 소양인병안: 림××, 녀, 41세, 룡정유기화  
학공장, 노동자.

병사: 결혼후 제일 처음 임신할 때에 임신중독증  
으로 앓은 후부터, 혈압이 장기간 내리지 않았으며,  
혹시 내렸다 하여도 또다시 오르면서 온정되지 않는  
데 이미 서약과 중약을 많이 썼으나 효과가 현저하  
지 않다.

초진: 1990년 1월 3일, 두통이 있으면서 두훈이  
있고,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시력이 모호하  
고, 층계로 오르거나 숨이차고, 심계가 있다. 맥  
현, 설질 푸르고 어반이 있고 설태가-푸르고도 두터  
우며, 청조하니 심장에 수축기 잡음이 있고, 심전도  
에 부정상이며, 관상동맥공혈부족, 혈압180/120ml,  
혈액형 B형, 다혈질, 활발형.

변상, 변병, 변증: 소양인, 열다형, 현훈, 흉비.

치료원칙: 청령보음, 청뇌지현.

방약: 형방지황탕가미- 진주모 목적 각25g 건지  
황 산수유 각15g 백복령 텍사 차전자 강활 독활 방  
풍 형개 각7.5g 하고초12.5g, 20첩.

제2진: 2월 1일, 혈압이 내려 146/100ml; 원처  
방대로, 20첩.

제3진: 2월25일, 혈압이 내려 135/90ml, 처방-  
술장다리50g, 더운물에 우려서, 차처럼 마시는데 1  
개월반 동안 견지하게 했다.

제4진: 1992년 3월 1일, 환자를 방문한 결과 혈  
압이 130/90ml로서, 그후 한번도 반복이 없었다.

총결: 1. 고혈압병은 가히 정복할 수 있는데 임상  
상 반드시 변상을 잘한 기초상에서 다시 변병증을

잘하여야만이 비로소 예기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양호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바 기타 잡병에서도 같다.

① 태음인: 열다성, 실증-청폐사간탕, 갈근해근탕, 열다한소탕, 라복자우담환; 한다형, 허증- 조위승청탕, 태음조위탕, 청심연자탕; 고혈압뇌병 혹은 고혈압위상기엔 우황청심환(북경동인당), 안궁우황환, 천마주사액, 사향주사액, 우황성뇌주사액등을 쓸 수있다.

② 소음인: 열다형, 실증- 곽향정기산, 영계출감탕, 사물탕; 한다형, 허증-12미관중탕, 궁귀총소리중탕; 고혈압뇌병 혹은 위상기엔 지보단, 소합향환, 부방단삼주사액, 인삼주사액 등을 쓸 수있다.

③ 소양인: 열다형, 실증-양격산화탕, 지황백호탕; 한다형, 허증- 형방지황탕, 독활지황탕; 고혈압 뇌병 혹은 고혈압위상기엔 자설단, 백호탕가미, 고목주사액, 하무무주사액, 청개령주사액, 쌍황련주사액, 시호주사액등을 쓸 수있다.

2. 본인의 임상체험에 의하면: ① 태음인엔 열다형과 혈이 탁한자가 많으므로 반드시 대황 라복자 천마 구인 마도령 웅담등을 쓰며; 한다형엔 혈이 삼하고 탁하여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 많은바, 반드시 녹용을 써서 보혈활혈, 거어통락 시키게 되면 양호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② 소음인엔 한다형이 많고, 열다형이 적는데 전인들이 말씀 하시기를 “소음인 열다자는 건강무병장수하다”고 하였는데 임상상에서 적지 않은 소음인 열다형들이 고혈압과 기타 질병으로 앓고 있다. 사상의학방제는 “한열온랭”과 “승강부침”의 원칙으로 조성되었는바 소음인은 이기 거풍화담활혈하는 약물로 치료하여야지 고한랭지체즉 쓰고 차고 냉한제를 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음인은 열다형이라고 하여도 비교적 열할 것이고 소양인이나 태음인처럼 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삼은 자고로 열성약으로 고혈압 증풍에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로 되었는데, 임

상체험에 의하면 인삼은 체온을 조절하고 강압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임상에서 많은 양의 황기를 쓸때엔 반드시 꿀겉질을 10:1의 비례로 쓸 것이며 그 기초상에서 생두충 청목향 오약 천남성을 더가하여 쓰기만 하면 양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 소양인: 만약 양인으로서 고혈압병을 얻게 되면 수월히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산생되며 질병의 발전속도 역시 다른 상보다 매우 빠르다. 다년래 임상 관찰에 의하면 소양인은 열다형이 많고 한다형이 적어서 평시에 보음억양하고 양의 성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이른바, 목적 하고초 술장다리 등을 쓰게되면 양호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

3. 고혈압전이의 엄중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및 뇌혈전과 뇌경색은 동방국가, 특히 연변류행병학의 특징으로써 서방국가에선 심장병병발증이 가장 엄중하다. 본인의 다년래 근 400여명에 대한 임상관찰과 조사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최종에 가서 뇌혈관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약 50-80%가량 되고, 그 외 20-40%는 심신공뇌쇠갈로 사망되었다. 때문에 고혈압병은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제때에 다른 병으로 넘는 것을 제때에 방지 하여야 한다.

4. 고혈압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정신조섭을 잘 결합 하여야 한다.

동무, 이제마선생은 <격치고>에서 명확히 제출하셨는바: “사상은 즉 사물심신(事物心身)인데, 사와 물은 인생으로서 침과 약물요법 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는 사업이고, 물은 재물로서; 심신은 즉 인간인바, 반드시 침과 뜸 혹은 약물치료 하여야 하는바, 때문에 인체이다.” 때문에 내가 인정하건대 “사상의학”은 “심신의학”으로써 임상상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위주로하는 기초대상에서 “정신심리요법”을 밀접히 배합하여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사람들의 집단속에서 정신창상과 성격이 조급한자들의 그 고혈압병 발병률이 정상사

람들보다 현저히 높다고 한다. 때문에 예방적 각도로 말할 때 사람들의 집단속에서 심신이 쾌활하고, 부당한 정신과 자극을 피면하고, 과도한 잡념을 없애게 되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도 있다.

5. 본인은 임상상 “사상의학적변상”을 기초로하고 기타 체질학설 오지리-갈, 란스탄나(1900년 혈형과 성격분류법), 희랍-회포크라디(공원전 400년-기존체질분류법); 구소련, 뻬뵐로브(1935년-신경체질분류법)들을 참고하므로써 객관지표도 탐구하여 보았다.

임상체험에 의하면: “태양인은 폐대간소이고 용의 성격 소유자로서, AB형, 담즙질, 흥분형에 부합되고; 소양인은 비대신소이고 말의 성격 소유자로서, B형, 다혈질, 활발형에 부합되며; 태음인은 폐소간대이고 소의 성격 소유자로서, O형, 점액질, 안정형에 부합되고; 소음인은 비소신대이고 나귀성격의 소유자로서, A형, 우울질, 약형에 부합되는데; 이분류법과 <사상의학>-변상법은 기본상 60~70 좌우 부합된다.”